

12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4.12.19.(목) 오후 2시 30분,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손영준 위원장, 안호림 부위원장,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박화선, 안성희, 이상헌, 이성우 위원 9인(강건기 위원 서면 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연합뉴스TV 제7기 시청자위원이 선정한 '2024 시청자위원상' 시상식 개최

제7기 시청자위원회는 경제부 한지이 기자를 2024년 시청자위원상 수상자로 선정, 금일 시상식을 가졌음. 2022년 처음 이 상을 제정했고 제7기 시청자위원들은 오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간 출중한 취재활동을 벌인 한지이 기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전달함. 시청자위원회는 한지이 기자가 '경제속속' 프로그램에서 직접 출연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며, 딱딱한 보도 형식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한 점이 돋보였다고 하였음. 이러한 시도는 보도 채널의 기존 틀을 과감히 깨고, 시청자들과의 소통을 중시한 결과물로서 한지이 기자의 헌신이 돋보이는 우수한 프로그램이었음. 감사의 뜻을 담아 이 상을 드린다고 평가했음.

▲ 손영준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12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12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다양한 뉴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점이 돋보였다. 시청자들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또 자체 방송 역량이 괄목상대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가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한다면 우리의 공론장이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론장 활성화를 위해 많이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합뉴스TV와 구성원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희가 12월 3일부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2주 정도 취재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큰 사건이어서 저희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고민의 결과물들을 이제 시청자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국회와 정치권 그리고 여러 집회들 그리고 수사 상황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의견보다는 팩트를 위주로 어떤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지금 저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시청자들은 이 사안의 실제적인 진실이 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정치 대담을 하루에 7~8편 정도의 대담 편성을 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저희 채널을 보시면은 다양하게 현 사태

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공론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호림 부위원장

저도 연장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2월 3일 이후에 다른 방송사 포함하여 연합뉴스TV도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방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TV의 실시간 중계를 통해 빠르게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정보전달이 되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정치적 이슈 중심으로 방송이나 패널들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도 채널인 연합뉴스TV가 더 객관적이고 헤드라인 메시지도 신중하게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합뉴스TV에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행복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연합뉴스TV가 더 발전되고 또 구성원 모두가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워낙 큰 이슈여서 이 사안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언론 매체들마다 자기들 어떤 판단에 따라서 보도를 하겠지만 저희 연합뉴스TV는 가장 중요한 게 팩트라고 생각하고 팩트 보도에 충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자막이나 스크롤 같은 경우는 제목 한줄 한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청자들한테 어떤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도 조금 더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인순 위원

- [다다를 인터뷰] 바이올린계 '퀸연아'의 탄생...로마공항 뒤집은 천재와의 만남 2024.10.19
[다다를 인터뷰] '바이올린 천재' 김연아의 애국가...야구장 만원 관중 뜨거운 환호 2024.10.21

[다다를 인터뷰] 한 뼘 더 자란 퀸연아...'인생 2회차?' 바이올린 콘서트 2024.11.28.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양에 대한 인터뷰를 처음 접했을때는 너무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내 반복되어 방송이 이어지다 보니 특징인 광고 목적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합니다. 천재성을 갖고 있는 어린 소녀의 재능을 발굴해 보도해 주심은 감사하지만 편파적인 기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저도 2년 동안 시청자위원을 하면서 연합뉴스TV에 이제 시청자위원으로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내면 그게 저희가 그다음 방송을 봤을 때 보면 바로바로 그게 수정이 되고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사실은 많이 좀 감동스럽기도 하였고 연합뉴스TV가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최근에 신지홍 본부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뵈니까 젊으시고 또 되게 의욕적이신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오늘로써 시청자위원 임기는 끝나지만 계속해서 채널 23번 고정해서 계속 옆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다다를 인터뷰>를 보니까 저도 두 번째까지 나간 거는 봤는데 세 번 나간 건 몰랐고 아마 이 사안 자체가 조금 관심 있는 사안이어서 <다다를 인터뷰> 담당하는 기자가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본 방송에서 나가는 건 아니구요. 유튜브용이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과하게 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적절하게 콘텐츠의 어떤 양과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 시청자위원으로서 하시면서 그동안 한 것들에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없이 방송 뉴스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게 시청자들의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보도를 점점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신석 위원

-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에 대하여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매월 뉴스 보도된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잘된 보도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시청자 의견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제가 활동하는 전국학교운영위원장협회가 교육 관련분야 협회다 보니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관련 교육 보도 내용과 청소년들의 문제 등에 대한 뉴스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청소년들이 모방범죄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였고 교육 관련 보도에 대하여서는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시청자들이 신뢰 있는 뉴스가 될 수 있도록 심층보도를 요청하였다. 이런 시청자위원회 의견들을 보도국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제언으로는 2023년과 2024년은 서이초 사건과 학생인권보호, 교권 회복, 학생·학부모폭력 문제와 청소년 마약 문제 등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많은 보도 이슈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공교육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을 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기만 했다. 하지만 연합뉴스TV의 "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 첫 운영" 집중 보도, '학교 마약 예방교육 전문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보도, 중동고 수능 출정식 전통의 응원 보도, MZ세대를 겨냥한 방송편성 등으로 청소년 문제와 교육 현장에 대한 균형 있는 보도로 시청자들이 공교육이 시대 맞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과 아직도 학교라는 공교육 현장이 살아있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공영방송 연합뉴스TV가 교육 현장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 편성 보도와 학교폭력 사건 사고나 청소년들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보도보다는 교육 현장의 순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취재와 프로그램 편성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교육, 청소년 관련 보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저희가 방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문이나 이런 매체들에 비하면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이쪽에 많이 할애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인데 앞으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획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연합뉴스TV 스페셜>이나 <뉴스프리즘> 같은 조금 호흡이 긴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코너들이 있는데 그런 코너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탐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강건기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강건기 위원(서면 제출)

- 23년 9월에 처음 시작한 "날씨속 과학속"코너 관련, 연합뉴스TV 시청자위원으로 큰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개설한 날씨속 과학속 코너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임하경 기상과학전문기자, 관계자 등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개발 성과(과학 이슈)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과학 현상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임하경 전문기자와 관계자의 노력과 끊임없는 탐구 덕분에 날씨속 과학속이 잘 정착한 것 같습니다. 임하경 기상과학전문기자의 신뢰감 있는 해설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학현상을 설명하면서 영상과 그림, 전문가 설명 등을 적절히 추가하여 시청자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위원으로써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뉴스피드"속에 "날씨속 과학속" 코너를 만들고, 과학분야 취재에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킹을 활용한다면 더욱 알찬 코너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저는 2년여간의 시청자위원으로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시청자위원으로 기회를 주신 연합뉴스TV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도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한 공영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날씨속 과학속' 코너는 새로 런칭해서 한 1년여 되었습니다. 저희가 나름 야심차게 만들어가지고 꾸준히 연중으로 해왔던 코너입니다. 앞으로도 제작시 과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 내용을 발굴, 취재하여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한수 위원

'세 집 중 하나' 1인 가구..."지갑 닫으며 내수 회복 제약", 해당 보도는 1인가구의 경제 파급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해당 가구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체 소비회복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는 진단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먼저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35.5%를 차지하고 약 10년 후에는 40%를 넘기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이어 "1인가구 소비 지출 비중이 전체의 약 20%에 달하는데, 이들의 소비성향이 코로나 팬데믹과 월세 등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소비를 제약하면서 내수 회복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은 주거비 부담, 고령층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1인 가구 소비 제약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이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물가 상승에 대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점도 소비를 위축시켰다"라면서 "한국은행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인 가구 정책 추진시 연령대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라는 내용까지 덧붙입

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최근 정부와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수 소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1인가구의 소비가 위축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연령별로 다르게 접근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는 점에서 완성도 높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월세 등 주거비용 부담 상승과 고용불안정이 1인 가구 소비변화의 주요 원인이라면, 팬데믹 선언 종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하여 정부나 산업계는 대책마련을 위한 어떠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던 것인지 등 그 현황까지 전하였다면 대책마련을 하는 데 좋은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제시한 '2019년 대비 가구원수별평균소비성향 변화' 통계를 살펴보면, 1인가구가 5.8% 소비를 줄인 것이 비해 4인 가구의 경우 0.5% 소비를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아이들 교육비나 생활비 등 필수소비 위주로 가계경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1인 가구의 경우 선택소비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를 줄이고 싶어도 줄이지 못한 4인 가구의 소비성향 역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통계와 한국은행 관계자의 진단만으로도 기사에서 의도하였던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으로 충분했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품목에서 가장 많이 지출을 줄였는지, 1인 가구 중에서도 연령별 차이만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인터뷰 또는 다른 통계 등을 활용해 살펴보았다면 더욱 풍성하고 유용한 기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이렇게 소비나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눈길이 가는 그런 기사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소비를 왜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계속 줄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품목에서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게 어떤 통계 같은 데 기반해서 만든 기사여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안 돼 있고 그걸 기자가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추측만으로 쓰기는 힘들었다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소비를 줄이고 왜 소비가 줄었으며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기사를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사 내용의 좀더 심층적인 면까지 진단, 분석해서 좋은 대책이 있으면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화선 위원

- [정신채린 삶의현장] "50년 호떡 판매 비법 전수"...제자 100명인 사장님 101번째 제자 입문기, 정신채린 삶의현장은 채이는 삶의현장 후속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정신채린 삶의현장 첫회로 고된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쉽지 않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중간에 기자와 어르신이 호떡 반죽 위에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이어가며 호떡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꽤 긴 시간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장비 없이 반죽을 앞에 두고 대화하는 장면은 시청하기에 조금 불편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미 타 방송사에서 음식을 파는 예능에서 위생 장비 미착용으로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시장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에서 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동 프로그램에

서 소시민들의 삶을 많이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올해 역사상 가장 더운 해... '1.5도 한계선' 첫 붕괴

올해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설정한 기후 한계선인 1.5도를 사상 처음으로 넘었다는 보도였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 중 '올해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설정한 기후 한계선인 1.5도를 넘었다'라는 멘트 뒤에 '1.5도를 넘은 게 처음이라 아직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멘트가 이어서 나오는데, 파리협정 목표를 모르는 시청자가 이 보도를 언뜻 듣게 되면 파리협정 목표가 기후한계선 1.5도 이내인데, 이 1.5도를 넘은게 왜 목표 달성 실패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파리 협정 목표를 아나운서가 간단하게라도 언급하거나, 화면상 인포그래픽 등으로라도 설명이 되었다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정신채린 삶의현장]은 타이틀이 바뀌고 나서 아마 이 크리에이터가 처음으로 만든 콘텐츠 일 거예요. 전반적으로 콘텐츠 자체에 별로 익숙하지 못해서 약간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했어야 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콘텐츠이긴 한데, 위생 장비 없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하는 거는 일반TV 채널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삶의 현장 같은데 가서 서로 얼굴이 안 보이고 이러면은 유튜브로서의 어떤 가독성이랄까 좀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냥 조금 편하게 만들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비위생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파리기후변화 협약 관련 보도는 리포트로 아마 처리가 됐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갔을텐데 간단하게 단신으로 소화하다보니 줄이는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에서도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날씨·기후 보도 시 시청자에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고 시각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희 위원

- 비상계엄사태, 탄핵 관련 보도, 비상계엄사태, 탄핵 정국으로 긴급하고 혼란스러운 시기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보도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뉴스특보 체제로 전환, 국회 등 주요 현장연결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도하고 광고 시간에도 화면에 뉴스속보가 계속 노출되도록 하는 등으로 잘 대처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패널 의존이 높고 탄핵 표결 전후 현 상황을 심층 요약 정리하는 보도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이 존중받고 그 의견들이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 상황 관련 청원이나 집회, 시국선언 등 다양한 목소리와 주요 외신도 함께 보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비상계엄 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도전문채널로서의 신속 보도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 노동 이슈·현안 관련 보도 아쉬움, 노동 관련 현안이나 이슈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니 지난 6월 '고용보험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의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한 노사정 합의, 지난 11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11월 2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등의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미있는 현안이나 이슈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탄핵 관련 보도는 지금도 계속 이제 한 2주 정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패널 의존율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4시간 체제의 상황에서 저희 인력만으로 다 채울 수도 없고 실제로 패널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패널만 많이 투입한 게 아니라 기자들도 스튜디오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여당·야당 출입기자, 법조 출입기자, 경찰 출입기자 이렇게 다들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취재한 것들을 직접 얘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파원을 통해서 현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부서에서 외신 번역을 통해가지고 세계 각국의 어떤 정상이나 현지 나라의 반응들을 타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노동 이슈 현황 관련해서 조금전에 여러 개가 빠져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굵직굵직한 주요 현안들이 잘 살펴서 빠지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헌 위원

이번 달은 12월 3일 저녁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보도전문채널 답게 신속히 대응해 보도했다는 점이 두드러짐. 계엄 선포 이후 국회 현장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신속히 정리해서 보도했고, 기자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늦은 밤 임에도 불구하고 시사평론가, 전직 정당 대변인들을 섭외해서 대담형식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전달해 단순한 상황 인지 외에 추가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헌법학회장과 의 전화 연결을 통해 헌법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제공해준 것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청자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유도한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타 방송사들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현장 상황이나 국회 본회의장의 내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과 비교해보면, 일부 내용은 반복적으로 다루지며 다소 단조롭다는 인상을 준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서울역 현장의 일반 시민들의 어수선한 모습을 다룬 것은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이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긴급성과 관련된 보도 흐름과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었다는 점은 없었는지 살펴봐주면 좋겠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12월 3일 날 10시 25분 정도에 기자회견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한 10분 정도 끝나고 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조치들이 현장을 영상카메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가 전화나 스튜디오로 전문가를 섭외해라 이게 헌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헌법학자들을 섭외하고 전문가들을 빨리 스튜디오로 불러내고 스튜디오로 나올 수 없으면 기자가 스튜디오에 가서 앉아서 저희가 이 한 세 가지 정도를 급하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축으로 그날 밤 새벽까지 계속 돌아갔다는 생각을 하고 헌법학회장 전화연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헌법학회장, 전 헌법학회장 전화 연결을 통해가지고 사안의 정보가 어떤 건지 헌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듣기도 했고 또 현장에는 카메라를 보냈고 스튜디오에는 기자를 곧바로 출연을 시켜가

지고 기자가 밤새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전문가연결 및 대담도 하면서 아침까지 시간을 채웠습니다. 서울역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자들을 곳곳에 주요 취재처로 보내가지고 시민들 반응 또는 의견을 듣다보니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이성우 위원

- 사랑의열매, 희망2025나눔캠페인 시작...목표액 4,497억(12.02.) 이번 뉴스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2월 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을 출범해 4,497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사랑의 온도탑' 관련 기부 소식을 꾸준히 보도했고, 이와 함께 '출근길 인터뷰'를 통해 기부의 중요성을 시청자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상업성을 가진 민영방송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연합뉴스TV의 공영성에 기반한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칭찬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해당 제목과 관련한 단신 뉴스만 있을 뿐 출근길 인터뷰 혹은 이에 버금갈만한 내용의 뉴스 보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매우 필요할 때입니다. 요즘 각종 정치와 경제 이슈로 인해 시국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소외계층 소식이 시청자들의 관심 밖으로 멀어지지 않도록 관련 이슈를 잘 조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성을 지닌 언론매체로서 사회적 순기능을 다하는 연합뉴스TV의 한결같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희 연합뉴스TV는 완전히 공적인 회사는 아니지만 방송 자체가 공공의 성격을 띤 거고 연합이라는 브랜드를 가진 TV로서 저희가 얼마나 공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은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대한 더 따뜻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사랑의 열매 캠페인을 포함해서 기부 관련 훈훈한 뉴스를 발굴,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아직 한 2주 남았는데 저희가 올해 가기 전에 신경 써겠습니다.

▲ 손영준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12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